

아동기의 전인적 발달을 위한 기독교 무용 교육에서 영성의 필요성¹⁾

강은혜 목원대 강사

박순자 숙명여대 무용과 명예교수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 사회의 많은 아동이 빈곤 아동, 아동학대, 이혼 등으로 인해서 본인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공계순, 2015:183-327). 우리나라의 빈곤 아동은 2018년 기준 6~8세 연령의 아동이 24.2%가 결핍을 느끼고 있고 9~11세 연령의 아동은 27.67%가 결핍을 느끼고 있다(아동권리보장원, 2018). 빈곤 아동은 단지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큰 영향을 준다.

한편,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 정책협의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18년 기준 초등부가 없는 교회는 47%이고 특히 유아부가 없는 교회는 97.4%에 달한다(기독교 신문, 2019년 5월 1일). 따라서 교회에서는 한국 아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함으로 선교적 관점에서 아동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교회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그리스도의 백성의 공동체이다. 특히 교회는 선교 공동체 및 삶의 공동체로서 공동체적 삶을 통해서 지역 사회에 대한 봉사적 기능을 수행해왔다(이정서, 2011:790). 그러므로 교회는 개인의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의 아동 문제에 대하여서 봉사적 정신을 가지고 섬김과 나눔을 실천해야 한다.

따라서 기독교 무용 교육은 아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 기독교 무용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며 몸을 매개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의미한다(강은혜, 2014:10). 교육적인 측면에서 기독교 무용은 인성교육, 예술교육, 다문화 시대 사회통합의 매체, 심리 치유, 신앙교육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이윤례, 2011:43-57). 또한, 기독교 무용은 아동들에게 더욱더 쉽게 성경을 인식시킬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매개체이다. 신명희는 기독교 무용은 아동들이 예배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도와주며, 친교적인 효과와 전인격적인 발달을 도와준다고 하였다(신명희, 2011:39-40).

더 나아가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영성 교육은 아동의 기독교 무용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다. 강은선은 아동은 언어적 한계와 인지적 한계가 있지만, 아동 스스로 독립적으로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날 수 있는 존재라고 하였다(강은선, 2017:53). 안수민은 특히 기독교 무용은 단지 신체적 움직임이 아닌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해 주실 때 일어나는 적극적인 반응을 무용으로 표현하는 것이라

1) 본 논문은 강은혜(2021)의 박사학위 논문 중 일부를 발췌하여 수정 보완한 것임.

고 하였다(안수민, 2011:65). 기독교 무용은 일반 예술 무용과는 달리 기술연마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성령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온몸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독교 무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영성 교육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영성에 의한 기독교 무용 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함으로써 아동의 전인적 발달과 영성 성숙을 돕고자 하였다. 또한, 아동이 사회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온전한 인격체를 이룰 수 있도록 기여한다.

구체적으로 현대 사회 아동기의 다양한 문제로 인해 어려움과 아픔을 겪고 있는 아동들을 정상적인 아동으로 성장하도록 돕고자 한다. 또한, 아동이 행복한 가운데 성인이 되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함을 통해 사회도 함께 행복해질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이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를 통하여 현대 사회의 아동 문제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영성 기반의 기독교 무용 교육의 틀을 제공하고자 한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현대 아동들의 문제 살펴보고 영성에 의한 아동 교육을 분석하고 아동기의 기독교 무용 교육에 대한 이해와 효과에 대하여서 고찰하였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아동기의 전인적 발달을 위한 영성 무용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II. 아동기의 기독교 무용 교육

1. 전인적 발달을 위한 아동기 기독교 무용 교육의 효과

1) 신체적 발달 효과

영성에 의한 아동기 기독교 무용은 일반적인 무용과 마찬가지로 아동의 신체적 발달에 효과가 있다. 특히 최근에 문제가 되는 어린이들의 비만에도 기독교 무용 교육은 큰 효과를 보인다(신명희, 2011:53). 미시간대학 어린이 병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초등학교 3~6학년을 대상으로 왕따가 당하는 원인 중 체중이 차지하는 요소를 연구하였다. 그 결과 비만이 왕따를 당하는 확률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도출되었다(황옥련, 2003). 어린이가 비만이 되는 이유는 생활 습관 등과 같은 환경적인 요인이 지배적이고 그 환경적인 요인 중 중요한 사항은 운동 부족이다. 최근에는 미디어의 발달 및 코로나 19와 같은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으로 더욱이 어린이들이 집에서 머물면서 운동을 하지 않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그러므로 어린이 비만을 치료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아동기에 기독교 무용을 배우게 되면 신체적으로 성장발육을 촉진하고 비만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무용의 특성상 몸을 유연하게 해주는 스트레칭을 우선으로 삼기 때문에 균형 잡힌 몸을 만들 수 있게 된다. 또한, 적절한 운동은 인체의 면역력을 증가(이신영, 2009:105)시켜서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에 대한 방어능력을 키울 수 있게 한다. 또한, 기독교 무용에서 신체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식으로 하고 예배의 처소로 인식하기 때문에 자신의 신체를 더욱 소중히 다루는 근거가 된다. 그러므로 일반 무용과 다르게 기독교 무용에서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기 위한 동기부여를 줄 수 있게 된다.

2) 심리적 발달 효과

영성에 의한 아동기의 기독교 무용 교육은 아동들의 심리적 발달에 효과를 보인다. 아동들은 자신의 무용을 보며 격려와 칭찬을 받으며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부정적인 개념을 극복할 수 있고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긍정적인 신체에 대한 인식은 더 나아가 자존감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해준다. 현재 아동들에게 나타나는 문제 중에서 큰 문제의 하나는 낮은 자존감과(이기영, 2009:13) 자신감이라는 것을 보았을 때 영성 기반의 기독교 무용은 아동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오는 것이다. 기독교 무용을 배우는 아동 중에는 역기능 가정에 속해 있는 아이들도 존재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가정적 배경에 의해서 내성적이거나 앞으로 잘 나서지 못하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또한, 선천적으로 신체가 왜소한 아동들도 부모들의 요청에 따라서 기독교 무용단에 들어오게 된다. 이러한 경우 아동들은 처음에는 말수가 적고 웃음이 없고 동작에는 자신감이 없고 소극적으로 연습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들이 영성에 의한 기독교 무용을 배우게 되면 점점 변화되는 것들을 경험한다. 특히 교사들의 격려와 사랑 속에서 그들의 내면이 변화되기 시작하며 찬양에 맞춰 춤을 추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정서가 밝게 변화된다. 또한, 무용단의 사역을 하면서 많은 무대를 경험하면서 자신감을 회복하게 되고 성취감을 맛보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일을 해낼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지게 된다. 어떠한 경우는 학업 성적이 좋지 않은 아동이 있었는데 기독교 무용을 하면서 성격이 담대하게 바뀌었고 시험을 볼 때 떨지 않고 시험을 보아서 학업 성적이 올라가기도 한다. 이렇듯 영성에 의한 기독교 무용은 아동들의 자존감, 자신감을 향상시켜서 심리적으로 안정적으로 아동들이 발달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된다(신명희, 2011:56).

3) 사회성 발달 효과

영성에 의한 기독교 무용은 아동들의 사회성 발달을 증진시킨다. 영성 기반의 기독교 무용은 공동체성을 강조하여 움직인다. 무용 선교단이나 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기독교 무용 단체는 또래끼리 한 집단으로 뭉쳐서 활동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호작용을 하며 서로를 이해하게 된다. 또한, 성경 말씀을 기반으로 움직이는 무용단의 성격상 성경에서 가르치는 사랑을 배우게 되고 이를 공동체에 적용하려는 특성을 갖게 된다(김은경, 2013:97-98). 이는 일반 무용을 배우는 학원이나 학교에서 콩쿠르 대회에 나가서 우승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 경쟁적으로 무용을 하는 것에서는 배울 수 없는 사회성이다. 또한, 최근에는 아동들이 사회성을 키우는 데 어려운 요소가 많이 있다. 각 가정의 상황에 따라서 아동들은 여러 학원을 개별적으로 다녀야 하며 진정한 의미의 관계를 맺을 기회를 갖기 어려워진다. 영성에 의한 기독교 무용의 교육에서는 무용단원들 간에 QT 나눔이나 삶 나눔을 통해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고 이를 통해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 아이들은 점점 더 개인화되어서 사회성을 기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고 있으며 특히 미디어나 왜곡된 정보를 바탕으로 인간관계를 맺기 쉬워 타인을 배려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 아동기 때 올바른 사회성을 기르기 힘들어지고 있다. 영성 기반의 기독교 무용단은 또래뿐만 아니라 선배들의 영향을 받으며 다른 사람의 사고와 감정을 들으며 자신의 내면의 세계를 확장시킬 수 있다. 또한, 선배들은 후배들이 자신을

보고 배운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모범을 보이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한 기독교 무용 단체에서는 무대에서 한 아이의 신발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되고 교사가 없는 상황에서도 그 한 아이를 위해서 모두 신발을 벗고 무대를 올라가는 것으로 공동체성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사례도 있다. 이렇듯이 영성 기반의 기독교 무용은 이 시대에 외롭고 소외된 아동들에게 영적인 친구를 만들어 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신명희, 2011:61-63).

4) 영성 발달 효과

영성에 의한 기독교 무용 교육의 가장 큰 효과는 역시 영성 발달일 것이다. 아동기는 감정적으로 민감할 때이고 이런 아동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영성에 의한 교육이 필요할 때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아동들의 영성 발달을 위해서 신앙심은 필수적이다. 영성은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여 발달하게 된다. 기독교 무용단에 소속된다는 것은 신앙 공동체에 소속된다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 어린이들은 자신의 가정이나 개인적인 배경을 떠나서 이 신앙 공동체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게 된다. 신앙 공동체에서 어린이들은 교사 또는 선배들의 영성을 전수 받고 이를 통해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다. 더욱이 이 신앙 공동체에서는 무용 공연뿐만 아니라 별도의 영성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기도 모임이나 QT 모임,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기회들을 갖게 되고 영적 체험을 통해서 어린이들의 영성은 한층 발전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어린이들은 영적 체험을 경험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신명희, 2011:64-65). 무용의 특성상 자신의 감정에 집중하게 되고 이는 영적인 하나님을 만날 기회들을 가져다주게 된다. 앞의 기독교 무용단의 사례들에서 살펴보았듯이 기독교 무용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아이들의 삶이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 소외되고 외로운 아동들은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경험 할 수 있는 기독교 무용단에서 위로받고 회복하며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5) 전인적 발달을 위한 아동기 기독교 무용 교육의 효과

전인적 발달을 위한 아동기 기독교 무용 교육의 효과는 신체적 발달, 심리적 발달, 사회성 발달, 영성 발달 효과로 볼 수 있다. 신체적 발달 효과는 일반 무용과 같이 기독교 무용도 신체적 발달 효과가 있으나 기독교 무용은 자신의 신체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식하므로 자신의 신체를 더욱 소중히 여기고 자부심을 느끼게 된다. 이것은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기 위한 동기부여로 작용하며 아동의 신체적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심리적 발달은 기독교 무용 공동체에서 같이 무용을 배우며 교사들과 선배들에게 받는 사랑은 아동의 심리를 안정적으로 만들어 줄 수 있다. 또한, 기독교 무용 속에서 만난 예수님의 사랑이 그들 안에 들어오게 되면 두려움을 내어 쫓는 예수님의 사랑이 아동들의 심리적 발달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 그리고 사회성 발달은 아동들이 기독교 무용 공동체에 속하여 활동하면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사회성이 발달하게 된다. 또한, 기독교 무용 공동체에서 하는 삶 나눔이나 QT 나눔을 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영성 발달은 기독교 무용을 하면서

듣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기독교 무용을 통해서 아동들은 전인적 발달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들이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 할 수 있을 것이다.

6) 일반 무용과 기독교 무용의 다른 점

아동기의 전인적 발달을 위한 무용 교육에서 본 연구는 기독교 무용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초등학교나 사설 학원에서는 일반 무용을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일반무용과 기독교 무용의 다른 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일반 무용과 기독교 무용의 다른 점은 목적이 다르다는 것이다. 이신영(이신영, 2000:23-28)은 일반 무용은 자신의 이익이나 명예, 가치를 높이기 위한 주관적인 목적으로 예술을 하고 있으나 기독교 무용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이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이신영은 개인적인 경험을 들어 일반무용 공연을 하고 나면 허탈감이 찾아왔지만, 기독교 무용을 하고 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목적성을 가지고 있었기에 나눔과 경배의 기쁨이 컸다고 하였다(이신영, 2000:24). 또한, 톨스토이는 “예술이란 무엇인가”에서 예술은 우리 삶과 문화에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하였으며 이때 예술은 삶의 차원에서 선한 것인지와 악한 것인지를 가려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따르면 예술의 한 장르인 무용 또한 삶의 차원에서 선한 것인지와 악한 것인지를 가려내야 한다. 하지만 일반 무용은 이러한 가치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선한 예술과 악한 예술을 구분하지 않는다(톨스토이, 1988:12). 또한, 안수민(안수민, 2011:24)은 기독교 무용의 목적은 주님 앞에서 진실한 고백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으로 춤을 추어 회중에게 주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기독교 무용은 그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지만, 일반 무용은 개인적인 만족과 이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일반 무용과 기독교 무용의 다른 점은 관람 대상이 다르다는 것이다. 일반 무용은 시대를 거둡함에 따라서 지배계층의 것으로 변모하여 엘리트들의 자신의 지위와 세련미를 상징하는 것이 되었다(이신영, 2000:26). 톨스토이는 예술이 상류 계급들만 향유하는 것이 된 것을 비판하며 “현대 예술은 만인의 예술이 아니며 민중에게는 전혀 불가해한 것이라는 다른 의견이 존재한다”라고 하였다(톨스토이: 1988:95). 반면 기독교 무용은 그 관람 대상은 마태복음 28장 19~20절, 사도행전 1장 8절의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와 같이 그 관람의 대상이 모든 만민이다. 그러므로 기독교 무용은 일반 무용보다 그 관람의 대상이 더 넓고 다양하다. 일반 무용이 더 좋은 무대와 사치스러운 공연장으로 집중될 때 기독교 무용은 더 낮은 곳에서 관람 대상을 찾아가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써 사용된다. 셋째, 일반 무용과 기독교 무용의 다른 점은 타 장르의 수용성 차이이다. 현대에 와서는 ‘퓨전’이란 말이 유행할 정도로 타 장르와의 협업이 일반화되고 있다. 기독교 무용은 이전에 ‘퓨전’이라는 말이 유행하기 전부터 타 장르에 대한 배타적인 자세가 아닌 타 장르를 수용하였다. 그 이유는 앞서 언급했던 것도 같이 기독교 무용은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 다른 제한들은 내려놓았기 때문이다. 조승미는 “오늘날 안무가들은 성경에서 제시된 각 인물이 지닌 특성이나 성격 등을 그들의 창작적인 작업에 의해 재해석이 가능하고, 한국무용, 현대, 발레 등과 같이 장르와 관계없이 주제를 선택할 수 있으며, 특히 무용의 스타일과 관계없이

폭넓은 주제와 춤사위로 안무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조승미, 1996:13-16). 또한, 이신영(이신영, 2000:26)은 일반 무용과 기독교 무용의 다른 점을 일반 무용은 지리, 기후, 풍토의 차이, 지역의 습관 등을 자기들만의 것으로 고집하며 전승하지만, 기독교 무용은 이러한 다른 점들을 인정하고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언어로 보며 자기만의 무용언어를 고집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기독교 무용이 이런 자기만의 무용언어를 고집하지 않는 이유는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인종, 종족, 민족, 언어, 종교, 문화에 상관없이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근거를 둔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기독교 무용은 일반무용보다 타 장르에 비해 높은 수용성을 가지고 있고 이는 효과적인 복음 전파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일반 무용과 기독교 무용의 다른 점은 무용의 도구인 몸에 대한 인식의 차이이다. 기독교 무용은 몸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식하며 몸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몸을 거룩한 예배의 처소로 인식한다. 강은혜(강은혜, 2014:10)는 기독교 무용은 몸의 주관자를 하나님이라 인정하고 몸을 매개체로 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라고 하였다. 성서에서 말하는 몸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대한성서공회, 2005:269, 고린도 전서 6장 19-20절)라고 나와 있다. 이신영(이신영, 2000:26)은 기독교 무용은 몸을 하나님이 주셨으며 이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여기며 자신의 몸을 거룩한 예배로 드리기 원하지만, 일반 무용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일반 무용은 환경에 지배를 받게 되며 소명이나 섬김을 염두에 두지 않기 때문에 춤이 가진 원래의 순수성을 잃어 간다고 하였다. 하지만 기독교 무용은 시대가 변해도 집단성, 진실성, 즐거움, 평등성 등의 순수함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였다.

Ⅲ. 영성에 의한 아동기 기독교 무용 교육의 발전 방향

1. 아동기의 전인적 발달을 위한 영성 무용 교육 프로그램

1) 연구 설계 및 절차

연구의 목적은 영성에 의한 기독교 무용 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함으로써 아동의 전인적 발달과 영성 성숙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온전한 인격체를 이룰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이다. 또한, 현대 사회 아동기의 다양한 문제로 인해 어려움과 아픔을 겪고 있는 아동들을 정상적이고 건강한 아동으로 성장하게 하여 아동이 행복해지고 성인이 되었을 때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여 사회도 함께 행복해질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시하고자 하며 연구 설계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성경과 선행연구의 문헌 고찰을 통해서 현대 아동기의 이해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이를 바탕으로 현대 아동이 겪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영성에 의한 아동 교육을 고찰하였다. 또한, 각 기관의 홈페이지와 선행연구 분석, 지도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교육 기관 및 무용단의 현황 분석과 프로그램 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아동기의 영성 교육 프로그램의 몬테소리(Montessori), 까발레티(Cavalletti), 유스트(Yust)의 프로그램과 각 기관의 현황 분석과

프로그램 분석은 본 연구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었다.

2) 프로그램 개발의 이론 및 방법론적 근거

(1) 이론적 근거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영성에 의한 기독교 무용 교육의 프로그램 제시에 활용된 이론적 근거는 아동기의 영성 교육 프로그램에서 살펴본 몬테소리 (Montessori), 까발레띠(Cavalletti), 유스트(Yust)의 프로그램을 참고하였다. 또한, 현대 사회 아동기의 문제를 통해 빈곤 아동 문제, 아동학대의 문제, 이혼가정의 문제, 중독 문제를 파악하였다. 몬테소리(Montessori)의 프로그램은 아동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첫째, 스스로 성장하는 교육, 둘째, 준비된 환경(교구)인데, 교구는 아동 스스로 자아를 형성하고 정신 발달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라고 하였다. 셋째, 교사는 아동들이 능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돕고 시범을 보여주며 아동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강요안나, 2014:54-55). 까발레띠(Cavalletti)가 제시하는 비유는 첫째,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이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늘 함께하신다는 것을 교육하고자 하였다. 성체성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현존하심을 제시하였다. 세례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전해주시는 것으로 표현하며 하나님 나라와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제시하였다(구경선, 2005:452-457). 까발레띠(Cavalletti)의 프로그램에서 강조하는 것은 아트리움과 교구이다. 준비된 환경으로부터 아동은 활동하고 하는 욕구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이다. 또한, 반 학교식 교수를 강조하였는데 교사가 소극적인 보조자의 역할로 아동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라고 하였다(강요안나, 2014:58-59). 유스트(Yust)는 아동의 종교교육을 위해서 두 가지를 강조하였다. 첫 번째는 스토리 링킹(Story-Linking) 이다. 유스트(Yust)는 아동의 영적인 형성을 위해서 아동의 삶 이야기와 성서 이야기를 연계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일상생활 속에서의 이야기와 성서에서의 신앙 이야기의 구성 요소를 연결 짓는 것을 스토리 링킹(Story-Linking) 이라고 하였다. 유스트(Yust)가 아동의 종교교육을 위해 강조한 두 번째는 침묵과 기도이다. 유스트(Yust)는 훈련된 침묵은 인간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였다. 아동들에게도 침묵을 통해서 영성훈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강요안나, 2014:72-74). 현대 사회 아동기의 문제를 통해 빈곤 아동 문제, 아동학대의 문제, 이혼가정의 문제, 중독 문제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빈곤 아동의 경우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심리적 박탈 등의 복합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아동학대의 경우에는 자아존중감, 죄책감, 불안, 우울, 신체 증상, 대인관계에서의 문제, 성 문제, 약물 남용 등의 다양한 문제를 일으킨다. 또한, 이혼가정의 아동의 경우에는 우울, 불안, 위축, 신체 증상, 주의집중, 자기개념, 강박증, 대인 예민성, 적대감, 공포 불안, 편집증 등과 같은 문제를 일으키고, 중독 문제의 경우 신체적 발달, 정신적 발달, 영성 발달, 학교생활 및 학업성취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방법론적 근거

이론적 근거에서 살펴본 몬테소리(Montessori)와 까발레띠(Cavalletti), 유스트(Yust)의 아동기

영성 교육 프로그램과 아동기 기독교 무용 교육 기관 및 무용단의 프로그램 분석을 바탕으로 방법론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방법론적 근거의 제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몬테소리(Montessori)의 영성 교육 프로그램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아동 교육에서 필요한 것은 스스로 성장하는 교육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Mat와 Center Work은 지도자가 제시한 동작을 배우지만, 매 차시 작품 연습은 아동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창작 수업으로 진행하였다. 하지만, 창작할 때 차시별로 찬양곡에 맞게 꼭 들어가야 하는 동작이나 교구 사용에 대해서는 1~2가지 정도 지도자가 제시해준다. 제시해준 내용을 토대로 아동들이 창작을 한다.

둘째, 몬테소리(Montessori)가 준비된 환경이 중요하다고 하였는데 준비된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구라고 하였다(강요안나, 2014:54-55). 교구는 아동 스스로 자아를 형성하고 정신 발달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라고 하였다. 몬테소리의 이론에 영향을 받은 까발레띠(Cavalletti) 또한 교구를 강조하면서 준비된 환경으로부터 아동은 활동하고자 하는 욕구를 불러일으킨다고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매 차시 작품과 어울리는 교구를 사용하여 자아 형성과 정신 발달을 돕고, 아동들의 활동 욕구를 상승시키고자 하였다.

셋째, 까발레띠(Cavalletti)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늘 함께하신다는 것을 교육하고자 하였다(구경선, 2005:452-457). 이를 바탕으로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심을 나타내는 야곱의 축복, 이 시간 너의 마음속 찬양곡을 선정하였다.

넷째, 몬테소리(Montessori)는 교사는 아동들이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하였고, 까발레띠(Cavalletti)는 반 학교식 교수를 강조하며 교사가 소극적인 보조자의 역할로 아동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지도자가 지시하고 명령하여 가르치는 교수법보다는, 지도자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아동들이 적극적으로 수업에 임할 수 있도록 돕는 교수법과 창작 수업을 통해 아동들의 능동성, 자발성, 적극성을 이끌어내는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박신경, 1994, 249-250).

다섯째, 유스트(Yust)의 프로그램에서 강조하는 스토리 링킹(Story-Linking)을 바탕으로 하여 스토리가 있는 당신을 향한 노래, 걸작품, 이 시간 너의 마음속, 저 들 밖에 한밤중에 찬양곡을 선정하였다.

여섯째, 유스트(Yust)의 프로그램은 침묵과 기도를 강조한다(강요안나, 2014:73-74). 이를 바탕으로 매 차시 영성훈련 점검리스트 숙제를 내줌으로써 연습이 없는 주중에도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일곱째, 이론적 근거에서 살펴본 현대 사회 아동기의 다양한 문제들로 인하여 아동들은 많은 어려움과 아픔을 겪고 있다(공계순, 2015, 183-327).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여주고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시켜주기 위해 매 차시 전인적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린이 찬양을 선정하였다. 또한, 어린이 왕의 춤꾼 찬양 울동 선교단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참고하여, 매주 수업이 끝날 때마다 다음 주에 배울 찬양곡 명과 찬양의 가사와 교구를 미리 알려주고 찬양 가사를 적어보고 묵상해오는 숙제를 내준다. 가사를 적어보고 묵상함을 통해 찬양 가사를 미리 인지하고 찬양에 담긴 의미를 생각하며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고 미리 안무와 교구 사용에 대해 상상의 나라를 펼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여덟째, 영성훈련은 각 기관과 무용단의 영성훈련 프로그램을 참고하였다. 특히 프뉴마 발레단에서 하는 영성훈련 점검리스트를 본 연구의 프로그램에 적용하였는데 연습이 없는 주중에도 말씀, QT, 기도, 주일성수를 지킬

수 있도록 수업 시마다 영성훈련 점검리스트를 확인하는 시간을 갖는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2. 프로그램 모형 및 지도안 개발

1) 프로그램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영성에 의한 기독교 무용 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함으로써 아동의 전인적 발달과 영성 성숙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온전한 인격체를 이룰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이다. 또한, 현대 사회 아동기의 다양한 문제로 인해 어려움과 아픔을 겪고 있는 아동들을 정상적이고 건강한 아동으로 성장하게 하여 아동이 행복해지고 성인이 되었을 때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여 사회도 함께 행복해질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각 교회에서 제시된 프로그램으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이루고, 영성이 성숙하여지며, 영, 혼, 육이 건강하여져서 온전한 인격체를 이루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첫째, 기독교 무용 수업을 통해 매 차시 때 신체적 발달을 이룰 수 있다. 둘째, 찬양의 가사를 통해 아동은 하나님의 창조로 지음 받은 자녀이며,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임을 인지하게 된다. 또한, 창작 수업을 통해 다양한 동작의 움직임 스스로 인지하게 된다. 또한, 교구 사용을 통해 교구의 특성 및 활용 방안 등을 인지함으로써 인지적 발달을 이룰 수 있다. 셋째, 찬양의 가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찬양, 기쁨, 감사, 평안 등을 느끼며 마음의 회복과 치유를 통해 심리적 발달을 이룰 수 있다. 넷째, 찬양의 가사를 통해 이웃과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을 배우며 사회성을 발달시킨다. 또한, 창작 수업을 통해 서로 토론과 의논을 하고, 몸을 부딪치며 함께 안무를 구상하며 사회성 발달을 이룬다. 또한, 교구 사용을 각 아동이 사용할 때도 있지만 함께 어울려서 모양을 만들거나 한 교구(홀라후프) 안에 여러 명의 아동이 들어가거나 하는 동작을 통해 사회성 발달을 이룰 수 있다. 다섯째, 찬양의 가사를 통해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고, 매 차시에 있는 영성훈련 점검리스트와 아동의 대표기도, 주기도문을 통해 영성 발달을 이룰 수 있다.

2) 프로그램의 내용

(1) 전인적 발달을 위한 프로그램

1차시에는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2~12차시 프로그램의 차시별 세부내용은 <표 1>과 같다. 차시별 세부내용에는 매 차시 찬양 곡명과 찬양단, 찬양의 주제, 주요 전인적 발달요인, 교구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주요 전인적 발달요인은 각 발달 요소가 서로 유기적인 관계로써 모두 발달하지만 주요하게 발달하는 요인을 기록하였다. 신체적 발달은 무용 교육을 통해 매 차시 발달하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았다. 수업이 없는 주중에도 영성훈련을 할 수 있도록 영성훈련 점검리스트 작성 숙제를 내준다. 점검리스트 내용에는 QT, 기도, 말씀, 주일성수, 주일 말씀 요약해 오기가 있다. 매 차시 수업이 끝날 때마다 다음 주에 창작할 작품의 찬양곡을 알려준다. 찬양의 가사를 적어보고 묵상해오는 숙제를 내준다. 가사를 미리 적어보고 묵상함을 통해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가사를 숙지해 음을 통해서 가사 내용을 춤으로 잘 표현하는 멋진 작품이 창작될 수 있다. 프로그램 제시는 보통 교회는 Barre가 없는 관계로 Mat와 Center Work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구상하였고, 쉬는 시간 이후에 기독교 발레 워십 작품을 창작하고, 조별로 공연하는 구성으로 제시하였다. 창작 작품을 위한 찬양곡은 11곡을 제시하였고, 찬양곡은 11곡 모두 어린이 찬양으로 선정하였다. 제시된 찬양곡의 찬양단은 파이디온 선교회, 엔젤 합창단, Various Artists, 노아 선교단을 선정하였다. 그 이유는 모든 곡이 아동들이 부른 찬양이기 때문이다. 창작 작품을 표현하는 대상자가 아동인데 찬양 가사를 부른 가수가 성인 여성이거나 성인 남성이라면 작품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총 12차시로 프로그램을 제시하였고,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1차시를 제외한 매 차시 창작한 작품을 조별로 공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다. 그로 인해 아동들의 자신감을 고취시키는 프로그램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3개월, 12주의 짧은 과정이기 때문에 초보자도 쉽게 배울 수 있고 표현 가능한 발레 동작 위주의 Center Work을 제시하였다. 발레를 처음 접하는 아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어렵지 않은 동작을 교육해야 아이들이 흥미를 느끼고 재미있어하고 발레를 어렵지 않게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배운 동작을 표현해냈을 때 아동들이 스스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데 반대로 어려운 동작을 배워 표현하지 못한다면 좌절감을 느낄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너무 어려운 고난도의 동작들은 교육에서 제외되었다. 매 차시 30분 안에 창작해야 하므로 찬양곡의 1절만 창작을 하는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표 1. 프로그램의 차시별 세부내용

차시	찬양 곡명	찬양단	찬양의 주제	주요 전인적 발달요인	교구
2	나는야 주의 어린이	파이디온 선교회	주의 자녀 된 아동.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의 믿음을 본받자.	인지적 발달	풍선
3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엔젤 합창단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아동.	심리적 발달	하트모양의 쿠션
4	당신을 향한 노래 (아주 먼 옛날)	Various Artists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동, 하나님의 자녀 된 아동.	인지적 발달	마라카스
5	결작품	파이디온 선교회	하나님의 결작품인 아동.	인지적 발달	캐스터네츠
6	낮은 자의 하나님(나의 가장 낮은 마음)	Various Artists	찬양함을 통한 기쁨, 감사함을 통한 평안.	심리적 발달	리본
7	야곱의 축복	노아 선교단	하나님의 축복, 아동과 늘 함께하시는 하나님,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인 아동.	심리적 발달	나뭇잎 모양의 부채
8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Various Artists	네 이웃과 친구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자.	사회성 발달	홀라후프
9	이 시간 너의 마음속	엔젤 합창단	하나님의 크신 사랑.	심리적 발달	다양한 색의 천
10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노아 선교단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성령 충만한 아동.	영성 발달	탤버린
11	기쁘다 구주 오셨네	파이디온 선교회	구주 오심을 기뻐하고 찬양하자.	심리적 발달	수술
12	저 들 밖에 한밤중에	파이디온 선교회	이스라엘 왕의 탄생.	인지적 발달	별 봉

3) 차시별 프로그램 지도안

지도안의 표의 틀 구성과 내용은 안비화(안비화, 2011:97)를 참고하였고 지도안의 세부적인 사항은 이론적 근거와 방법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본 연구자가 개발하였다. 프로그램은 총 12차시로 구성되었고 본 논문에는 2차시에 대한 예시만 <표 2>로 제시하였다.

(1) 2차시 프로그램과 주요 내용

표 2. 발레교육과 기독교 발레 워십 창작 작품 2차시 지도안

찬양 곡명	나는야 주의 어린이	2차시	토요일 2~4시
학습주제	주의 자녀 된 아동	풍선	인지적 발달
학습 목표	•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의 믿음을 본받자.		
내용 특성	•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갖는다.		
단계	활동 내용		
도입 (10분)	기도 출석 확인 숙제 검사 수업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도자의 기도로 시작한다. • 출석부를 확인한다. • 영성 훈련 점검리스트와 찬양 가사 적기와 목상 숙제를 점검한다. • 오늘의 수업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준다. 	
전개 (100분) (쉬는 시간 10분 포함)	Mat (2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allet Stretching을 기본으로 배운다. • 1차시에 배운 Mat 복습하기 • 두 다리를 앞으로 쪽 펴고 허리 숙이기 Stretching • 나비 다리하고 허리 숙이기 Stretching 	
	Center Work (2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시에 배운 Center Work 복습하기 • En Bas, En Avant, En Haut, A la Second 팔 Position 배우기 • Degage • 발 Position 1번, 2번, 4번, 5번 Saute • Passe • Sissonne 	
	토론 및 의논 (10분) 기독교 발레 워십 작품 창작하기 (30분) 공연하기 (1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별로 나누어서 토론 및 의논을 통한 작품 구상 • 나는야 주의 어린이 창작하기 • 창작한 작품을 조별로 공연하기 	
마무리 (10분)	소감 나눔 기도 주기도문 숙제 내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 소감을 나누고 아동이 돌아가면서 기도를 한다. • 다함께 주기도문으로 마친다. • 영성 훈련 점검리스트와 다음 주 찬양곡의 가사를 적고 목상해오는 숙제를 내준다. 	

- * En Bas (앙바): 팔을 동그랗게 만들고 밑으로 내리는 동작이다.
- * En Avant (안아방): 팔을 동그랗게 만들고 가슴 앞으로 드는 동작이다.
- * En Haut (앙오): 팔을 동그랗게 만들고 머리 위쪽으로 위로 올리는 동작이다.
- * A la Second (알라스공드): 양쪽 팔을 옆으로 벌려 들고 있는 동작이다.
- * Degage (데가제): 한쪽 다리는 지탱을 한 채로 다른 쪽 다리는 앞, 옆, 뒤쪽으로 다리를 45도 정도 드는 동작이다.
- * Saute (썰떼): 제자리에서 위로 도약하며 뛰는 동작이다.
- * Passe (파썰): 한쪽 다리를 반을 접어 발끝을 무릎에 대는 동작이다.
- * Sissonne (시손느): 한쪽 다리를 뒤쪽으로 들고 위로 도약하면서 뛰는 동작으로 발을 교차하면서 앞으로 나가며 뛰어나갈 수 있다.
- * 나는야 주의 어린이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40초).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영성에 의한 기독교 무용 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함으로써 아동의 전인적 발달과 영성 성숙을 돕고자 하였다. 또한, 아동이 사회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온전한 인격체를 이룰 수 있도록 기여한다. 구체적으로 현대 사회 아동기의 다양한 문제로 인해 어려움과 아픔을 겪고 있는 아동들을 정상적인 아동으로 성장하도록 돕고자 한다. 또한, 아동이 행복한 가운데 성인이 되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함을 통해 사회도 함께 행복해질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에 성경과 단행본, 학술지 및 석·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문헌 조사를 토대로 아동기를 대상으로 한 기독교 무용 교육 기관 및 무용단 현황과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한다. 첫째, 아동기는 신체적, 인지적, 심리적, 사회성, 영성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며 아동기에 적절한 교육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아동기 전인적 발달은 신체적, 인지적, 심리적, 사회성, 영성 발달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고 각 영역이 구분된 것이 아닌 서로 유기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호 보완적인 요소들이다. 그러므로 모든 영역에서 전인적 발달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현대 사회의 아동기의 문제는 크게 빈곤 아동, 아동학대 문제, 이혼가정의 아동 문제, 아동 중독의 문제가 있었다. 아동의 문제는 아동의 부분적 영역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의 전인적인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대 사회 아동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전인적인 발달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고안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기독교 영성은 그 시대에 따라서 정의가 변화되어 왔다. 영성의 능력은 자신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내적 치유를 받으며 관계를 회복하는 등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또한, 영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것으로 영성의 유무에 따라서 인간의 삶의 결과는 확연하게 달라질 수 있게 된다. 성서에서의 영성은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말한다. 영성은 성령 충만하여 성령이 열매를 맺는 것으로

이는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서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아동 영성 연구에 대한 공통적인 주장은 ①영성은 인간 고유의 핵심 가치라는 것, ②아동의 영성은 아동의 감각적 경험과 관련되고 감각 중에서도 신의 감각과 같은 특별한 경험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 ③영성은 인간의 초월성과 신비의 경험이며 원초적인 것, ④ 영성은 타고나는 것이지만 후천적인 교육에 의해서 촉진되거나 억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동의 영성 교육의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 영성 교육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점은 ①아동을 영적인 존재로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 ②아동들에게 근원적인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 ③하나님을 경험하며 다 감각적인 체험으로 배우도록 해야 한다는 것, ④가정 속에서 아동들이 영적인 경험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아동기 무용 교육은 신체적, 인지적, 심리적, 사회성 발달에 도움을 준다. 일반 무용과 기독교 무용의 다른 점은 목적, 관람 대상, 타 장르의 수용성, 무용의 도구인 몸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분석할 수 있다. 기독교 무용은 일반 무용이 채워줄 수 없는 아동의 전인적 발달에 도움을 주는 요인들을 가지고 있다. 특히 영성 발달은 일반 무용이 아닌 기독교 무용에서 발달시킬 수 있는 것으로 이를 통해 아동의 진정한 전인적 발달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전인적 발달을 위한 아동기 기독교 무용 교육의 효과는 신체적 발달, 심리적 발달, 사회성 발달, 영성 발달 효과로 볼 수 있다. 기독교 무용을 통해서 아동들은 전인적 발달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들이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 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영성에 의한 아동기 기독교 무용 교육의 발전 방향을 분석하며 아동기의 전인적 발달을 위한 영성 무용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아동 영성 이론을 기반으로 총 12차시의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 프로그램은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 다양한 찬양의 주제와 교구들을 사용하여 구성되었다. 특히 아동의 내적 에너지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교육 방법을 도입하여 교사의 지도를 최소화하고 아동들이 창의적으로 자신의 내면의 에너지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창작 수업을 기본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들의 현 상황 파악을 통해 영적인 필요를 인지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영성 기독교 무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시하는 연구가 수행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서 향후 아동기 기독교 무용 교육을 수행할 때 영성에 의한 교육을 수행하여 많은 아동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요안나 (2014). “감각을 통한 어린이 영성 교육 프로그램 연구 - 영·유아기 아동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육대학원.
- 강은선 (2017). “가정에서의 어린이 영성 형성 교육 연구 - 이야기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육대학원.
- 강은혜 (2014). “기독교 무용의 선교적 사명에 대한 연구 - 아르곤 댄스 컴퍼니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공계순 외 (2015). 『아동복지론』. 서울: 학지사.

구경선 (2005). 『몬테소리 교육과 기독교 교육』. 서울: 교육아카데미.

김은경 (2013). “초등학생 인터넷 중독에 대한 치유방안 - 신앙공동체를 통한 기독교 영성교육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대학원.

대한성서공회 (2005). 『성경전서』. 서울: 두란노서원.

박신경 (1994). “Maria Montessori 의 교육사상과 그 기독교 교육적 의미”. 『신학과 목회』. 8. 233-257.

신명희 (2011). “아동기 발달을 위한 어린이 찬양 율동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일장신대학교 일반대학원.

안비화 (2011). “다문화사회 아동을 위한 합창무용교육 프로그램”.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안수민 (2011). “기독교 무용에서 성령의 역할”.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이기영 (2009). “결손가정 아동의 자존감 향상을 돕는 기독교 상담 프로그램 개발”. 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학제신학대학원.

이신영 (2009). “기독교무용 프로그램이 기독교 성인여성의 건강관련체력, 혈중지질, 신경내분비계 및 면역 반응에 미치는 효과”.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이신영 (2000). “한국 선교 무용의 실태”.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이윤례 (2011). “기독교 선교 무용의 교육적 가능성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대학원.

이정서 (2011). “변화하는 한국 사회와 기독교 복지의 실천전략 - 아동복지를 중심으로”. 『신학과 실천』. 28. 779-806.

조승미 (1996). “성서를 통한 기독교 무용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톨스토이, 이철 역 (1988). 『예술이란 무엇인가』. 서울: 범우사.

황옥련 (2003). “비만아동과 표준체중아동의 신체상, 자아존중감 및 집단 따돌림 정도 비교연구”. 석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기독교 신문 2019. 05. 01일자. <http://www.gdknews.kr/news/view.php?no=4467>

아동권리보장원(2018), 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SelectStatsBoxDiv

논 찬 문		기독교학문연구회	
발표논문 제목	아동기의 전인적 발달을 위한 기독교 무용 교육에서 영성의 필요성	발표자	강은혜, 박순자
		논찬자 (소속)	안비화 (안양시립소년소녀합창단 상임안무자)

이 논문의 강은혜의 박사학위논문을 요약, 정리한 논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기의 아이들을 돕기 위한 방법으로 영성을 기반으로 하는 기독교무용의 필요성을 주장한 논문이다.

저자는 오랜 시간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무용을 지도한 경험을 통해 하며 기독교 무용이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온다는 것을 발견 했고 이를 통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교회는 말씀에 입각하여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적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며 무용교육이 현대 사회의 취약계층에 놓인 아동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의 전인적 발달과 영성 성숙을 도울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해결방법으로 영성을 강조한 기독교무용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무용이 갖고 있는 전인적 발달을 위한 교육적 효과는 이미 여러 논문을 통해 이야기되어왔고 그 효과도 증명된 바 있다. 그렇다면 저자가 이야기하는 기독교무용이 갖는 특이성은 무엇인가?

연구자는 그것을 영성교육으로 이야기 하고 있다.

아동기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는 영적체험을 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이미 큰 위로가 축복이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과 만나는 영성교육이 무용교육과 함께 이루어진다면 아동기 아이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교육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저자와 생각을 같이한다. 때문에 연구자가 이야기 하는 영성을 강조한 기독교 무용에 관한 논문은 의미 있고 연구자와 같이 주님이 주시는 뜨거운 가슴으로 아이들을 사랑하고 교육할 수 있는 자원들의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된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본 논문에서는 영성교육과 무용교육과의 연결부분에 대한 연구가 더 많이 필요하다 생각 된다.

과연 어떻게 영성교육을 무용 프로그램을 통해 녹여낼 것인가에 대한 깊은 연구가 아쉽다.

무용을 시작하기 전 기도하고 찬송가에 맞춰 무용을 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영성교육이 가능하겠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미 교회나 기독교 단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독교 무용교육에서의 특이점과 장점을 취합하고 연구 분석하여 저자가 이야기 한바와 같이 현대사회 아동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도울 수 있는 영성이 강조된 기독교무용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